



승실대학교 유형 변형 3회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의 밑줄 친 ㉠과 ㉡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술하시오. (700±70자, 40점)

[문제 2]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800±80자, 60점)

<보기>

2008년 형사 재판에 처음 도입된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를 재판에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 재판관과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때 ㉡ **재판관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할 뿐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거나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건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지나친 감성(感性) 재판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시문 [가]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이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국민주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틀이 잘 갖춰져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국민주권의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국민 개개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고, 정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정통성 확보와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시문 [나]

사법(司法)은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으로서, 범죄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하여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가 작용이다. 우리 헌법 제101





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다. 즉,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본래의 직무로 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법은 공정함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지를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관은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제시문 [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기개·욕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이성은 지식 및 진리 추구, 기개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욕망은 육체적·물질적 쾌락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 더불어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이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와 대응하여 각각 통치자·수호자·생산자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여겼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각각 지혜·용기·절제이며, 이들이 각각의 덕목을 가지고 각자에 맞는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에게서 이상적인 정치는 지혜의 덕을 가진 철학자에 의한 철인정치(哲人政治)였다. 플라톤은 도덕적인 인간,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이상적인 인간인 철학자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감각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고, 이성과 지성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인간만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통해 욕구와 정념을 잘 다스릴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성과 지식의 능력이 탁월한 소수의 인간은 진리를 깨달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인 다수의 인간은 소수 철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엄격히 구분돼 있거나, 소수가 다수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독재 체제와는 다르다. 플라톤은 ‘소수의 독재’를 ‘이상 국가’로 보지 않았다. 플라톤은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세 계층의 조화를 통한 정의실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철인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제시문 [라]

이슬람교도들은 매년 한 달 정도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녘까지 금식을 하는 종교 의식이 있는데, 금식을 하는 달을 라마단이라고 한다. 국내의 한 종교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 인구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이 소속된 회사, 학교 등에서도 라마단이 관심을 끌고 있다.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서기 632년부터 시작되었다. 라마단 기간 중 금식은 종교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을 수련한다는 의미도 있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 가난한 이웃에게 식량을 주거나 친구나 친척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도 있다.

라마단처럼 각 사회의 문화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즉 문화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각각의 우열이나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생각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이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간 교류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문화, 인종, 민족, 계층의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며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시문 [마]

어떤 사회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도록 하자. 아마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게 될 텐데, 이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몇 시인지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4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을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사실, 당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 없이는 복합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복합적인 사회에서든 진실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자. 살인이 금지되지 않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주의를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타인을 피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개인들은 가능하다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대규모의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서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믿는 사람들과 작은 집단을 만들어 연대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해 보자. 사람들은 살인을 반대하는 규칙을 인정하는 작은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의 금지는 모든 사회에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모든 사회에는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덕률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살인에 대한 규칙은 그러한 도덕률의 예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모든 존속 가능한 사회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발견된다. 문화마다 어떤 규칙을 합법적인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더 큰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 간의 차이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류이다. 모든 도덕률이 사회마다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제시문 [바]

끼리끼리 붙어서 / 아무런 낚새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노래 부르며 박수치며 혹은 / 흐느끼며 통곡하며
끼리끼리 붙어서 하나가 된다.

나무는 나무대로 / 바람은 바람대로 / 들꽃은 들꽃대로
창녀는 창녀대로 / 부부는 부부대로 / 끼리끼리 붙어서 산다.

바닷가를 보아라. / 모래는 모래끼리 붙어서 모래사장을 만들고
바람은 바람끼리 붙어서 / 파도를 만들지만

파도 또한 한 덩어리가 되어 / 산보다 큰 함성을 만든다.
나무는 바닷가의 나무는 / 파도와 바람과 함께 노닐면서
청정하게 서 있다.

달려가서 바닷가에 서 있고 싶어라. / 끼리끼리 사는 모습 바라보며
청정하고 싶어라. / 죽음까지도 청정하고 싶어라.
내가 뱉는 욕설까지도 /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싶어라.



제시문 [사]

우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상당히 숙명적 시각으로 대한다. 그들은 외부인에 의해 착취당하고, 노예로 팔려 가야만 했던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강조한다.

만약 아프리카의 흑인 지도자들이 ‘우리 아프리카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 용어는 대개 1930년대부터 시작된 흑인 정체성 회복운동이라는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예무역과 식민 지배를 거처며 서구인들이 제멋대로 왜곡시키고 짓밟았던 흑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은 흑인들을 사냥하듯 사로잡아 사하라 사막 건너 아랍 상인에게 팔았던 베르베르족과 투아레그족은 물론이고,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와 같은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처럼 흑인 노예를 구매했던 이들은 모두 흑인 정체성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공의 두 번째 민선 대통령인 타보 음베키의 유명한 연설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역시 역사 공동체로서의 아프리카인을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전역의 부족 이름과 구전으로 전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스스로를 그들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남아공이 인종과 성별,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소유임을 천명했지만,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라는 짧고도 강렬한 자문화 중심적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핍박받아왔던 아프리카 대륙 흑인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메아리쳤을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흑백분리정책에 신음하던 남아공의 흑인들을 아프리카인과 동일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프리카 대륙의 자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전 아프리카적인 지지를 얻고자 했다.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출제 의도

- 최근 3개년간 송실대의 논술 기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2023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과 같은 상태가 혐오의 발생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토대로 <보기 2>와 같은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 (2022 기출) 1. 제시문 (가), (나), (라), (리)를 두 입장으로 나누어 대조하고, 한 입장을 택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의 물음에 답변하시오.
2. <보기 2>는 현대 예술의 방법과 지향점을 논한 글이다. 밑줄 친 ㉡의 의미를 <보기 3>의 밑줄 친 ㉢의 관점과 관련지어 논술하되, [문제 1]에서 선택한 한 입장과 제시문 (마), (바), (사)를 근거로 활용하시오.
- (2022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2. 제시문 (사)의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 (2021 기출) 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 <보기 2>의 ㉡과 같은 집단 광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 (2021 모의) 1. 제시문 (나), (다), (라), (마)의 입장을 두 부류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제시문 (바), (사)에 근거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제시문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큰 틀에서 송실대는 <보기> 또는 밑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적용 분석형 논제를 출제하고 있다. 간혹 경희대 인문과 유사한 분류형 논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 적용 분석 논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시문들의 단순 요약 및 나열식의 적용은 송실대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답안 유형에 해당된다. 송실대는 여러 차례 입학처의 출제 의도에서 밝히듯, 제시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및 조합을 통한 입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타 대학 논술문제들에 비해 비교적 송실대의 제시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수험생들 입장에서 간신히 제시문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치 요리 재료를 요리하기 편하게 다듬듯, 각 제시문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요약보다는 개괄적인 요약을 간략한 1-2문장으로 기술한 뒤, 그것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번 문항은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2023학년도 모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인 <보기>의 밑줄에 대한 적용 설명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시문 <가>에 서술된 국민권 확대의 방향으로 <보기>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사법 독립의 가치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을 바탕으로 국민권 확대와 사법 독립이라는 두 입장의 차이점과 극복의 전망까지 읽어낸다면 논제가 원하는 ‘시사점’에 대한 이해로 충분할 것이다.

즉 답안은 ①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가능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이해, ②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국민권 확대와 사법권 독립이 충돌하며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관한 이해, ③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을 바탕으로 국민권 확대와 사법 독립의 충돌이라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모색 등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번 문항은 2022학년도 모의 유형처럼 네 개의 제시문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실제 기출에서는 분류한 뒤, 특정 밑줄에 대한 적용설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연습 논제의 취지에 걸맞게 분류 후, 한 입장을 선택해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로 변형하였다. 경희대 인문의 유형과도 유사한 문제로, 문화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기반한 분류 및 요약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한 입장을 선택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끄러운 논지전개가 문제풀이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시 답안

[문제 1]

<보기>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영향력 있는 지식인, 특권층 또는 소수지배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방지하고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때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할 뿐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배심원의 평결을 유죄의 여부와 형량 결정의 최종 단계로 두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제시문 <나>를 보면 사법권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는 법관이 다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냉철한 법리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만약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판결을 구속한다면 이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능력은 동일하지 않고, 이 때문에 특정한 일을 전담할 전문인을 두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사법의 영역에 적용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전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능력을 지닌 전문인을 두는 것이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의 판단이 전문가들인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 2]

제시문 (라)~(사)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라), (바)와 (마), (사)로 구분된다.

우선 (라)와 (바)는 절대적이거나 보편적 차원이 아닌, 문화에 대한 상대적 관점에 해당된다. (라)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전통이 이슬람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라마단 기간 중의 의무적 금식 전통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올바른 문화의 이해는 그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한다. 같은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사례로 (바)를 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무, 바람, 들꽃, 모래 등은 '대로'와 '끼리'라는 표현처럼 모두 나름의 특수성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즉 다양성의 보존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마)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가능하다.

우선 (마)는 모든 사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인의 금지나 진실의 추구하고 같은 필수적인 도덕률이 없이는 사회가 구성되거나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마)의 입장은 문화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도덕률이라는 객관적 기준은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문화에 다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도덕적 기준 또한 상대적이라고 보는 것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사)는 아프리카 흑인 지도자들이 꺾박받은 흑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성향의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 역시 서구와는 다른 아프리카만의 문화적 고유성을 자긍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본정신은 (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에 따른 우월함이 아닌,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